

조선대 앞 상습 교통혼잡 대책 마련 급하다

하루 2만대 차량 조선대 드나드는 사거리 출퇴근 정체 극심 치과병원 울타리 허물어 추가 진입로 만들고 공원 조성 추진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정문 사거리가 출·퇴근길 광주 도심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교통 시스템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 도심 제1순환로 가운데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조선대 정문 사거리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정문과 인접한 조선대 치과병원 울타리(담장)를 허물어 차량 진입로와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정문 사거리는 순환로 중 필문대로(풍향동 서방사거리-남광주 교차로 4.2km)의 끝부분에 위치한데다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대에는 봉선동과 학동·지원동 방면의 교통 흐름마저 막히게 하는 최대 교통혼잡 유발지다.

이 사거리는 조선대와 조선대공대 직원 및 학생들의 차량은 물론 조선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족, 조선대치과병원을 찾는 이들의 차량이 한데 몰리는 시간대가 되면

신호를 서너 번은 받아야 학내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당수 동구나 남구 주민들이 대학 캠퍼스를 통과해 출근하는 경우마저 있어 정체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학동쪽 출입구로 들어와 대학 캠퍼스를 관통해 정문을 거쳐 금남로나 산수동 방면으로 빠져 나가거나, 역으로 정문으로 들어와 학동쪽 출입구로 나가는 차량들이 수백 대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대 정문을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최소 1만 6000대(정문 통제일 제외)에서 2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조선대와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정문을 통과해 200~300m 이상을 관바로 진행하는 반면 치과병원을 방문한 차량들은 정문을 지나 30여m도 못가 중앙선을 넘어 좌측 방향으로 진입해 주차하도록 돼 있다.

치과병원측은 치과 방문차량이 반대편

■조선대치과병원 추가 진입로 개설안



차선에 줄지어 선 차량들의 사이를 뚫고 좌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들이 엉킬 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치과병원 주차장 최소 1만 6000대(정문 통제일 제외)에서 2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조선대와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정문을 통과해 200~300m 이상을 관바로 진행하는 반면 치과병원을 방문한 차량들은 정문을 지나 30여m도 못가 중앙선을 넘어 좌측 방향으로 진입해 주차하도록 돼 있다.

특히 치과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고령인 탓에 운전이 미숙해 혼잡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하교시 도로를 횡단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워낙 많아 크고 작은 접촉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대치과병원은 자체 논의를 거쳐 치

과병원 방문 차량들로 인한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방문 차량의 정문 통과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대학 정문에서 200m 가량 떨어진 필문대로변에 접한 치과병원 울타리(담장)를 허물기로 했다. 울타리를 허문 자리에 차량 진입로를 개설해 대학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해 대학 사거리에 집중되는 차량을 줄이는 한편 300여㎡ 내외의 시민공원을 만들어 친환경 경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조선대 사거리는 향후 건설될 도시철도 2호선 역 가운데 한 곳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주차장 진입로 개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손미경 조선대치과병원장은 26일 "산수동에서 병원까지 1km 구간을 통과하는데 2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면서 "병원 울타리를 없애 시민들이 필문대로에서 관바로 또는 유탄해 치과병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면 교통 분산 효과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윤장현 전 시장 보이스피싱 피해 4억5000만원 출처는? 3억5000만원 대출 받고 1억원은 지인에게 빌려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 '보이스피싱' 피해(광주일보 11월 23일자, 26일자 6면)를 입은 4억5000만원은 은행 대출금과 지인에게 빌려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사기 피의자 김모(여·49)씨에게 송금한 4억5000만원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 두 곳에서 총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나머지 1억원은 지인에게 빌렸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피해자인 김모씨에게 송금한 4억5000만원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 두 곳에서 총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나머지 1억원은 지인에게 빌렸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피해자인 김모씨에게 송금한 4억5000만원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 두 곳에서 총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나머지 1억원은 지인에게 빌렸다.

검찰은 또 윤 전 시장이 지인에게 빌린 1억원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광주시장 시절 외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점에서 차용증과 이자 등이 오간 내역이 없을 경우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전 시장이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은행대출 3억 5000만원이 신고되지 않은 배경 등도 수사 중이다.

일단 은행권 채무가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이 늘었다는 점에서, 나머지 피해액은 올 1월 대출을 받은 탓에 신고 내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는 매년 1월1일부터 2월28일 사이에 하며, 재산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1억원을 (윤 전 시장에게) 빌려준 지인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최근 2주 일정으로 내달 광주 진로소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마무리했으며 이후 행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또 피해자 신분임에도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 강남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정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깬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 의원을 7~8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보복 원정 온 수도권조폭 12명 압송
26일 오후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수도권 폭력조직원 12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광주지법 조폭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광주에 집결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직원 성추행' 문화전당 간부 정직 1개월

2년여 걸쳐 성희롱 발언도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간부는 2016년 3월 출장을 함께 간 여직원과 자정을 넘겨 3차까지 술자리를 한 뒤 술에 취해 호텔 객실 문을 열고 강요하고 택시에서 손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년여에 걸쳐 해당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문체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윤 전 시장 보이스피싱 사건 전말 밝혀야"

시민사회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 광주 전남본부 26일 성명서를 내고 "윤장현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민중당의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보복 성격으로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이 의심된다"면서 "윤 전 시장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성지 광주시민의 자존감을 훼손한 부끄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범주의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올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성지 광주시민의 자존감을 훼손한 부끄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범주의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가정집 침입 잠든 주부 옆에서 음란행위 한 30대 징역형

○새벽시간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는 주부 옆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 제주 시내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

던 김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3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가정주부 A씨 옆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것.

○그는 잠에서 깬 A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고 남편이 달려오자 곧바로 도주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깨어나기 전까지 성적 접촉을 시도한 흔적이 없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설 66주년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